

지나간 시대의 흔적들... 도시의 끝자락에서 바라본 한국



문헌학자의 현대 한국답사기 1

김시덕 지음

"아파트와 빌라 외벽에 적힌 글씨체들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개성을 달리하는 훌륭한 답사 대상입니다. 1990년대 이후 건설 회사의 이름을 붙인 브랜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개성 있는 아파트 글자가 주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서 프로그램들이 보급되면서 개성 있는 간판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때 한국 전역을 뒤덮었다가 사라져 가는 개성 있는 간판과 아파트 글자를 기록하는 것은, 여러분이 손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도시 답사 방법입니다." (본문 중에서)

일상에서 도시를 읽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간판을 보는 것이다. 눈에 잘 띄는 빌라나 당대의 시대상을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세탁소를 비롯해, 부동산, 슈퍼, 미용실, 이발소 등의 간판은 서민들의 일상과 밀접하다. 이들 간판들은 시대에 따라 글자체나 디자인도 다르다. 간판을 보면 도심의 분위기와 내력 등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동네 근처에서 먼 지방까지 다니며 도시 곳곳을 기록하는 도시 답사가 있다. 물론 촬영도 한다.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를 역임한 김시덕 박사는 지나간 시대의 흔적과 자취를 추적한다.



김 박사가 최근 펴낸 '문헌학자의 현대 한국답사기 1'은 도시의 끝자락에서 산촌, 어촌까지를 바라본 현재진행형의 한국을 담고 있다. 도시의 역사와 현재를 탐구하고 예측하는 도시문헌학자답게 저자는 전국의 골목을 누비며 서민들의 이야기를 풀어낸다.

지금까지 펴낸 '서울 선인', '갈등 도시', '대서울의 길' 등은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그렇게 저자는 도시 답사를 매개로 오늘의 삶은 물론 다음 세대에 살아갈 존재들을 호명한다.

도심 골목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간판 가운데 하나는 세탁소다. 이름 중에는 '컴퓨터'나 '컴퓨터클리닝'이라는 말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 당연히 컴퓨터가 내장된 세탁기로 정확하게 세탁을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세탁소에 그와 같은 이름을 붙이는 나라는 거의 없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인 '컴퓨터클리닝'이라는 간판을 보고 컴퓨터를 수리해주는 곳으로 착각했다는 일화도 전해온다.

저자가 조사한 간판 중에 가장 많은 호칭은 슈퍼마켓이다. "슈퍼마켓으로 분류되는 동네 소매점이 전국적으로 100가지 넘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80년대 제작된 슈퍼마켓 간판 가운데는 '수퍼마켓'이라는 'ㅍ' 받침 표기가 있다. 이러한 간판에는 글씨 양 옆에 간판을 제작해 준 업체의 상표가 새겨져 있다. 저자는 요즘 주류 업체들이 식당 메뉴판을 제작해주면서 회사 상품을 노출해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한다. '수퍼마켓'은 '컴퓨터'처럼 예전 외래어 표기법을 따른 것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를 읽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는 '아파트'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가량이 아파트

에 거주할 만큼 아파트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다. 그러나 아파트는 반드시 단지로 건설되는 것이 아닌 한 두 개 동만 지어지는 형태도 있다.

저자는 아파트가 폐쇄적인 생활방식을 만들어낸다고 비판받지만 이것은 몇몇 폐쇄형 단지에만 해당한다고 본다. 한두 동의 독립형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생활의 상당 부분을 주변 지역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카드나 비밀번호가 있어야 진입할 수 있는 고층 단지들은 분리된 삶의 형태를 만들어 냈다고 본다.

책에는 시민예술, 화분과 장독대, 개량 가와집, 버스정류장 등과 같은 카테고리별 매개로 한 도시 탐사 내용도 담겨 있다. 길을 오가며 매번 접하지만 대부분 스쳐가는 풍경들이다.

또한 저자는 도시의 경계를 넘어 '문명 충돌'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농민 대 어민·화전민, 도시 대 농촌 등의 '대립' 등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과 내일을 예견한다.

한편 책에는 저자가 전국을 누비며 찍은 풍부한 사진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아울러 주요 답사지를 구글 지도에서 볼 수 있는 QR코드를 배치해 가까운 곳부터 걸어볼 수 있도록 했다.

<북트리거> 1만8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대문수퍼마켓 (2018년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아파트의 중정 (2022년 4월)

야만적인 엘리스씨

황정은 지음

십년 전 황정은이 '야만적인 엘리스씨'를 펴냈을 때, 그는 아직 젊은 작가였다. 두 권의 소설집과 첫 장편을 출간한 신예였다. 처음 작품이 발간됐을 때 영화평론가 이동진은 한 채널에서 "훌륭한 소설들이 대개 그렇듯 '야만적인 엘리스씨' 역시 그렇게 길게 메아리쳐 울리는 필사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끝난다"고 언급했다. 이후 2018년 일본 출판사 가와데 쇼보신사에서 출간된 번역본에 대해 "독자의 일상을 흐드는 무서운 소설이다"라는 평이 따랐다.



이번에 황정은 작가의 '야만적인 엘리스씨'가 개정판으로 나왔다. '고모리'에 사는 10대 소년 엘리스씨는 소중한 무언가를 잃은 뒤 여장 부랑자가 돼 사거리에서 서다. 그는 무엇을 잃었고 왜 잃게 된 것일까. 빠져나가기 위해 네 발로 발버둥을 쳐도 사방이 막힌 탓에 다시 안으로 떨어지고 마는 공간이다. 엘리스씨 형제는 어머니의 폭력을 고스란히 당하며 살고 있다. 아버지의 방관과 어머니의 폭력에 노출된 상황에 놓여 있다. 엘리스씨 형제는 아버지의 전처가 낳은 형과 누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데... 황 작가는 "나는 어떤 꿈을 반복해 꾸다. 캄캄한 방에 불을 켜려고 애쓰는 꿈이다. 어두운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누르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는다. 불을 켜려고 애쓰면서 나는 이게 꿈이고 죽음이요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꿈이라고 말하면 널 두려울 것이요 그 그래야 거기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았다. 엘리스씨 이야기도 그래서 썼다"고 말한다. <문학동네> 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완벽하지 않아 다행이야

오리여인 지음

불완전한 너와 내가 만나 온전한 우리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혼자 사는 삶이 좋아 비혼을 꿈꿔오다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된 주인공은 '함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다행과 불행과 사랑을 경험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일은 때론 짐이기도 했지만 결국 힘이기도 했다.



'완벽하지 않아 다행이야'는 전작 '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로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오리여인의 신작 그림에 세이다. 혼자였던 삶에서 인생의 반역자를 만나 돌이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아이가 태어나 셋이 되어가는 나날들을 솔직하고 꾸밈없이 글과 그림으로 기록했다.

저자는 평생 남이었던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일, 아이를 낳아 기르고 엄마가 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아이와 함께하는 세계는 너무도 낯설었고 산후우울증까지 찾아왔다.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행복했지만 그때마다 눈물도 함께 흘렸고 '평범한' 엄마가 아닌 것에 대한 죄책감이 따라왔다.

저자는 무겁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던 건 가족과 이웃, 우리의 힘이었음을 이야기한다. 책을 쓰면서 산후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채워야 비로소 나누어 줄 수 있음도 알게 됐다고 전한다.

"어딘가에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누군가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당신과 닮은 내가 있다고. 부족하고 자꾸만 울게 되지만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가 여기 있다고 말이다." <수오서재> 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책의 변곡점

시그프리드 헤커 지음·전지현 옮김

인생이나 역사의 중요한 계기, 변화가 오는 굴곡 등을 '변곡점'이라 부른다. 국제분쟁사의 화두가 되는 한반도 핵 문제 또한 변곡점들을 수차례 마주해 왔다. 남북정상회담,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등 파다하게 알려진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6자회담(2003-2007), 북한의 위성 발사시도와 오바마 정부의 대응(2009),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019) 등은 낮은 인지도에 비해 한반도에 파급력이 컸다.



핵물리학자 시그프리드 헤커가 한반도 핵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관찰하며 모은 사실, 통찰을 엮어낸 '책의 변곡점'이 바로 그것.

저자는 복잡미묘한 외교관계 속에서 북한이 '이중경로 전략'을 취하면서 핵개발과 외교 노선을 동시에 모색해 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의 초점이 여태 '비핵화'에 맞춰져 있다며 맹렬히 비판하고, 핵폐기 아니면 자멸이라는 양자택일을 북에 강요한 미국 정부의 기조 또한 실패했다고 분석한다.

저자는 한국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핵 담론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린다. 북한 참수, 전술핵 보유 등 파괴적 수단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위기를 돌파하는 열쇠는 한국이 쥐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김정은의 갈등, 문재인-김정은 사이 에 오갔던 비핵화 논의, 제3국과의 미묘한 역학관계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창비> 3만 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